교원평가 한 달…달라진 교육 현장

“학교가 친절해졌어요”

공개수업·가정 통신문 … 학부모와 스킨십 강화

교사들 “업무량 늘고 학생 눈치까지 … 힘들어요”

지난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평가를 받는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광주의 학교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교운영계획을 상세히 소개한 장문의 가정 통신문을 배포하는가 하면 모든 학급의 공개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생·학부모와의 스킨십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업준비 차질은 물론 학생들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는 오는 6~9월 교원 개개인에 대해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지며,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된다.

◇“친절해진 학교에 신난 학부모들”=광주의 A초등학교는 최근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 학교에선 그동안 학년별이나 학급별로만 공개수업을 해왔다. 공개수업 후에는 학급별로 학부모와 담임교사간 교육상담도 이뤄졌다.

광주의 B중학교 교사는 최근 자신이 맡는 학급의 학부모들에게 A4용지 8장 분량의 유인물을 보냈다. 이 유인물에는 자녀의 학업능력 수준을 비롯한 일별·월별 학사일정, 청소당번 지정 방법, 자리배치 기준, 모든 학부모의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

특히 지각이나 청소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벌점 등을 제시하는 등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원평가제에 맞춰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 방침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학부모와의 유대감 형성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자평했다.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교사들은 업무량 증가는 물론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를 보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는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의식한 간부(교장, 교감)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면서 “학부모에게 학교의 교육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지시 때문에 꼬박 일주일간 학습운영 설명서를 작성하느라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교사들의 모임에서 앞으로는 학생에게 생일축하 카드나 선물 등을 주지 말자고 결의했다”면서 “제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자칫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는 ‘인기성 이벤트’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의식한 교사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지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교육현장에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꽃처럼 예쁜 미소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북구청 개청 30주년 봄꽃 전시회’에 출품된 꽃을 구경하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할미꽃·금당화·매발톱·팬지 등 10만본이 선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밤낮없는 강력범죄 해결은 ‘캄캄’

광주 중흥동 금은방 강도 등 경찰 수사 ‘미궁’…주민들 불안

최근 광주지역에서 ‘북구 금은방 강도사건’과 ‘동구 여고생 둔기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미궁에 빠지면서 추가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에서 살인, 절도, 강도, 마약, 방화 등 ‘5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 강력 사건들이 미제(未濟)로 남아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북구 중흥동 한 아파트 앞 상가 조모(56)씨의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토대로 공개수사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 밤 9시40분께는 광산구 쌍암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던 박모(여·47)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광산경찰은 형사과 전 직원을 동원해 지역별로 담당 구역을 나눈 뒤 범인 검거에 나섰으나 이렇다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불편과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에는 동구 계림동 한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박모(18·고교 3년)양이 괴한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다.

올 들어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 가운데 4건도 미궁에 빠졌다. 지난달 2일 동구 학동에서 일어난 편의점 강도사건과 남구 봉선동 연쇄 편의점 강도사건(1월 17일, 2월 7일)이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베테랑 경찰관들이 각 사건에 배치돼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불산단 냉동창고 불 1억 피해

5일 오후 1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산업단지 내 S식품회사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조립식 창고 1천400㎡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늘, 배추, 양파 등이 불에 타 9천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눈썰미 좋은 도둑 비싼 돼지 골라 훔쳐

쌍나팔

○…동료 양돈업자의 양돈장에서 상품성이 높은 성돈(成豚)만을 골라 훔친 40대 양돈업자가 경찰에 검거.

○…화순경찰은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양돈업자의 돼지 5마리를 훔쳐 이를 도축장에 판 조모(42·광주시 우산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화순군 이서면 김모(40·화순군 화순읍)씨의 양돈장에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들어가 120kg짜리 성돈 5마리를 훔쳐 도축장에 150만원을 받고 판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곡성에서 양돈업을 하면서 익힌 눈썰미로 100여마리의 돼지 중 상품가치가 큰 돼지만을 순식간에 골라내 자신의 차에 옮겨 실었던 것으로 판명.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생활정보지 광고 조심하세요”

4500만원 주고 산 ‘명품시계’ 집에 와보니 돌멩이

구인란 부업광고 보고 찾아갔다 낭패…범인 검거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 김모(50·북구 두암동)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다방에서 이모(49)씨와 이씨의 부인(44)·딸(20)·이씨의 여동생(39) 등 일가족 4명을 만났다. 생활정보지 구인란의 부업광고를 보고 찾아간 것이다.

김씨는 “백화점에 명품시계 납품일을 하는데, 부업으로 한 번 팔아보지 않겠냐”는 이씨의 제의를 받았다. 김씨와 이씨가 대화를 나누던 사이 시계납품업자로 가장한 이씨의 딸은 “서울에서 명품 시계를 가져 왔다”며 이씨에게 건넸고, 이씨는 딸에게 현금 600만원을 줬다. 또 광주 모 백화점 귀금속판매업자로 신분을 속인 이씨의 부인은 현금 700만원을 주고 이씨에게 시계 2개를 사갔다.

이씨의 부인과 딸은 “시계 한 개당 5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에 주겠다”고 김씨를 부추겼다. 이들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은 김씨는 이씨에게 현금 4천500만원을 건넨 후 집에 돌아와 시계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명품시계 15개 대신 돌멩이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상자를 다시 챙겨 만났던 장소로 달려갔으나 이씨 일당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본보 3월 24일자 6면〉 이씨 일당은 지난 4일 대구에서 범행을 모의하던 중 김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광주북부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구와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살 길이 막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MT 갔다 온 여대생 자살 왜?

“성추행 당했다” 부모에 전화

MT를 다녀온 여대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모 대학교 2년 A(여·21)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일 구례 모 콘도에서 실시된 MT에 참가했던 A씨는 학생들과 실내등을 끈 뒤 ‘사람 찾기’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임 직후 “성추행을 당했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구례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MT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짝퉁 경유’ 시중 판매 주유소 업자 5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짝퉁’ 경유를 시중에 판매한 해남 모 주유소 대표 김모(35)씨 등 주유소 업자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유사 경유 제조업자 유모(45·구속)씨로부터 등유와 혼합된 자동차용 저질 경유를 구입해 1억2천만원 상당을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